



가족계획 소식

발행인 흥종관
편집인 김용태
인쇄인 김태동

발행소 · 가족계획연구원
서울서대문구 흑석동 115
(우편번호 120-02)

⑧ 8003~7
1974. 5. 31. 등록
라-1793호

전국 보건소장 세미나 결과

가족계획 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개선방안

① 대부분 간호 보조원인 가족계획요원(74·3%)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채용 연령의 하한선을 높여야 한다. 이유는 결혼·분만 기타 신상문제로 업무에 부실한 경향이 있어서인데, 재고돼야 한다.

② 보건소의 결핵·모자·가족계획요원 등 3개 보건요원의 보수에 차이가 있다. 시정을 요한다.

③ 현재까지 가족계획사업은 여성에 대한 계몽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 남성에 대한 새로운 계몽방안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④ 보건소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보건요원의 신분을 양성화해야 한다.

⑤ 보건요원 임명시 시·도의 사전승인제도 등 현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장의 관찰로 해야 한다.

⑥ 가족계획협회 시군간사 제도를 개선하여 그재원을 유효적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강구돼야 한다.

⑦ 현재 보건소장의 결원이 많은 것은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으므로 제반재원을 처우개선에 치중해야 한다.

⑧ 일선 보건소장은 최근 보건행정 보다 종합행정을 다뤄야 하는 실정이어서 타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행정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⑨ 각종사업추진에 있어 사업결과에 대한 허위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① 목표량 제도

② 사업의 목표량은 각요원의 활동의

② 요원의 활동

③ 월별 출장계획표에 의한 읍면동 요원들의 가정방문과 이에대한 보건소 지도원의 정기적인 또는 수시확인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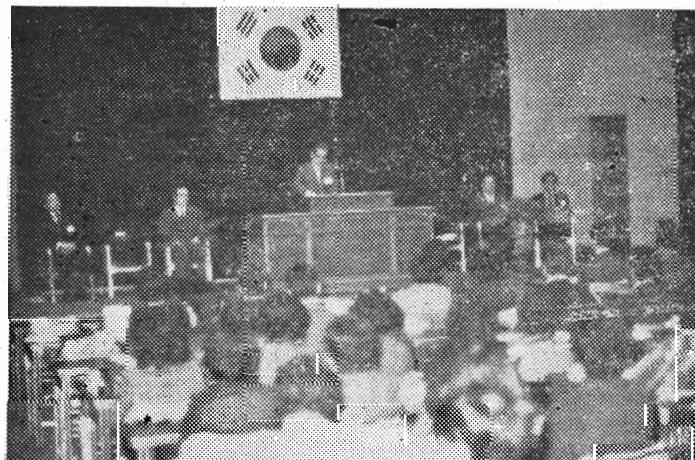
④ 보건소 지도원은 읍면동 출장시 요원들의 1일업무활동보고를 받고 확인접검한다.

⑤ 요원의 집단계몽활동을 연 1~2 회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⑥ 사업통계에 대한 확인조사는 요원들이 사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간혹 실시하는 것도 좋다.

⑦ 보건요원이 타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촉구한다.

⑧ 사업조정 기능강화



◇ 지난 3월 17일 75년도 전국보건소장세미나에는 전국에서 1백87명의 소장이 참석했다.

최소한의 양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으나 종합평점제도를 사용하는것이 좋다.

⑧ 각종 피임방법 중 어느 한가지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각방법에대한 기본평점 점수제를 철가한다.

⑨ 시술후 추구관리에 대한 성적도 반영한다.

⑩ 시술권장비는 목표량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⑪ 타요원의 사기를 감안하여 처우개선비는 각요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⑫ 특수가족계획사업(병원·도시영세민사업등)은 관할보건소와 긴밀한관계를 가져야 한다.

⑬ 특수사업의 모든 실적은 관할 보건소의 실적에 포함돼야 한다.

⑭ 판내의 모든 보건사업의 계획파실적정리등의 조정업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페이지로>

채용연령 높이고
보수차이 시정바라

타업무 지원 골치, 종합평점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가 잘사는 정도를 알아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명확하고 간단히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데 출산율이 사용될 수 있다. 출산율이 높으면 후진국이고, 낮으면 선진국에 속한다는 것이다.

1975년 세계인구는 40억이며 이중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한 국가에 11억, 후진국에 29억이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인구 1천명인당 연간 출생률은 선진국에서 17.2, 후진국에서 37.9로서,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출생률이 2.2배 높다.

대륙별로 아프리카의 출생률은 46·5로서 가장 높고 다음은 아시아(동부아시아제외)가 42·8, 남미가 37·0이다. 이를 대륙과 비교하여 개발된 국가가 속한 유럽의 출생률은 16·1, 북미는 16·5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사망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인구 1천명인당 사망률은 선진국에서 9·2, 후진국에서 14·2였다.

인구증가율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낸 차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진국의 높은 출생률이 지속되는 한 후진국의 인구증가는 그나라 자신과 세계적으로 침착해질 것이다.

한 예로서 전인구 중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을 보면, 1970년 선진국에서 이 비율은 26.7%에 불과하

지상전시실

<11>

세계 각 지역의 출산율



◇ 대륙별 출생률은 아프리카 46·5, 아시아(동부제외) 42·8, 남미 37·0, 유럽 16·1, 북미 16·5이다.

였으나 후진국에서는 40·5%였다. 생 산보다 연소인구의 소비부담이 큰 후

높은 출산율에 기인된 것이다.

<글·송건용 연구 2과장>

<1페이지에서>

① 국공립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시술했을 때도 시술비를 지급해서 적극 참여토록 한다.

④ 피임계속사용률의 향상

② 시술의사의 양산으로 시술의사의 질이 저하되는 듯하다.

③ 시술비를 받기 위해 부작정 시술하는 경향이 있다. 부작용에 파대치료, 좋지 않은 지식적달, 또는 부작용치료비를 피시술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다. 또한 시술의사가 무면허자에게 시술을 대행시키는 행위도 간혹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술의사의 재정비와 이들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⑤ 보건소장이 시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술비는 적절 보건소장에게 지급토록.

⑥ 모자보건사업의 강화와 아울러 가족계획사업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

다.

⑦ 먹는 피임약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본동의 질적향상파악

을 위해 유료공급제를 채택해야 한다.

⑧ 보건소행정조직의 개선이 어느 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 사업 효율화를 위한 방안

① 병원가족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병원과 보건소간의 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상호교환할 수 있는 오원 월례회가 필요하다. 이 월례회는 보건소장이 주최하되 회의에 필요한 예산은 병원사업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② 보건소단위의 홍보활동이 미진하므로 앞으로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국공립병원의 가족계획사업과 같이 보건소장이 직접시술하는 경우 그 시술비를 소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병원사

업·시술요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도 영향을 준다.

④ 요원의 인사권을 보건소장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건사회부 지원에 반영된 자행에 따른 규간호원만이 요원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지역에서는 종 간호보조원을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보건소 자체시술장비를 강화하고 목표량 배정의 경우 종합평점제로 시급히 채택하여 실적이 높은 경우 보상금제도가 채택되어야 한다.

<기록·편집>

요원들의 광장

수필

입 버릇처럼 하는 말

경북 달성군 보건소 가족계획 선입지도원

김점수

입버릇처럼 하는 말! <그만 낳아야 된마!> 직업의식에 서인지는 모르나 웬지 아기를 많이 가진 사람은 사람까지도 미워질때(?) 가 있다.

집에서는 항상 아
들이고 말이고간에 <많이 낳아서는
고생한다>는 말을 역시 입버릇 처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큰 올케는 아들들, 딸하나이고 작은 올케는 딸만 셋인데도 오래전부터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 완고하신 아버지께서도 아직 작은 며느리가 아들이 없다고 한 마디 하신 적이 없다.

八〇八

가정방문의 요령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모자보건요원

실미식

가정방문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수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수단이다. 이 가정방문을 통해서만 이 지역주민의 요구가 무엇이며 어떤점을 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수있을것이다.

이 가장 중요하고도 세밀하게 계

획되어야하는 가정방문의 오령을 터득한다는것은 그리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모아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방문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로단정!
고운
별장것밤의
자꾸
진정가고만
있어.
가슴
스며
고인
말씀
피난자
로단의
밀창종지에
뿌려주고
설계.
하지만
이
간한
우물불한
진실을
불태우면
내
꽃빛
여기로
채워놓았어
어제밤
좋았던지,
고운
나에게
멸리
별장아름다워
절말
내
꽃빛여기
제면
여울지
않아라.
로단에

발언대 대답

요원 기초교육에 관해

지난호 「가족계획소식」의 발언대에 <기초교육 발령과 함께>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요원 기초교육에 관한 근황을 소개한다.

기초교육과정 계획

기초교육은 가족계획 요원의 경우 계몽원기초과정과 지도원 기초과정이 있으며, 가족계획요원은 아니지만 유사한 교육을 받는 모자보건요원 기초과정이 있다. 1975년도의 요원 기초교육 계획은 계몽원 5백명, 지도원 1백50명 모자보건요원 기초 4백50명 도합 1천1백명이나 된다.

요원 교육반은 50명 단위로 1개반이 되므로 총 22개반이나 된다.

계획 당초에 요원 중앙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퇴직으로 공석 중인 수와 연초 퇴직경향 그리고 연중(중반기) 공석경향을 감안하여 계획인원을 확정한다. 연간 요원의 이직율은 점차 완화되어 74년말에는 약 38.1% (퇴직 26.8%, 전직 11.3%)이다.

요원기초교육 개선

사업의 발전을 위한 요원 기초교육개선방향을 모색하였던 것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차례 걸쳐 판계자 협의가 있었다.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첫째, 1주일간의 교육기간이 짧아서 기대하는 교육효과를 충분하게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주일을 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연 구원의시설, 수용 능력과 예산, 그리고 전체 훈련계획인원 (약 1만명) 등으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2주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둘째, 요원의 기초훈련을 발령전 사전교육하는 문제인데, 이 역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기발령된 요원의 훈련도 완전히 다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상자를 차출하는 데도 상당한 복잡성을 수반하게 된다.

올해 기초교육인원은 계몽원 5백명, 지도원 1백50명 등



◇요원들은 발령을 받자마자 곧 가족계획연구 원에와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백에 하나> 라도 교육을 받은 자가 가족계획 요원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공직 생활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교육비의 낭비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용일자로 부터 오래된 만 우선차출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능한한 조기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차제에 요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차출이 있을 때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주기 바란다.

만일 특별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그다음 기회에 곧 참석할 수 있도록 상사와 상의하거나 요청을 해주기 바란다.

세째,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하자>는 문제이다.

교육내용은 가용지식 및 능력배양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사회의 변천사조에 순응·상응할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역할을 두고 있다. 또한 봉사자·지도자의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힘 쓰고 있다.

교재를 비롯하여 교안·시설·숙소·음식물 등 여러 가지 면에 수시로 개선을 하여 가고 있다.

특히 요원의 계몽활동에 있어 필 요한 가정방문 요령과 지역사회 인구현황파악, 그리고 상담기술을 높이

기 위해 실습보건소의 실습교육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항상 연구해야하는 것으로써 와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계담당자는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신규 발령된 요원에게

처음 가족계획요원으로 발령을 받고 보면, 알고있었던 지식도 평범한 지식도 다 발휘하지 못한채 어리둥절하게 된다.

발령을 받으면 우선 보건소에 선임자·도원이나 지도원 (선임자)에게 소스로 충부할수 있는 자료를 얻어야 하는데 가령 「수태조절법」「모자보건의 실제」「계몽교육의 원리」 등을 벌어서 보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입지에 서 일을 하되 어디에서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선임지도원에게 배워야 할것이다. 또한 한지역사회에서 신입자를 받아야 하므로 겸손하고 친절한 자세와 몸가짐의 균형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 지역의 풍속·관습 그리고 제반 현황파악을 정확히·신속하게 해야한다. 신념과 정열이 있다면 요원여러분에게 이 모든 길이 열려질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능한요원이 되어질 것이다.

개인은 물론 집단을 상대로 계몽활동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그 지역의 단체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한다.

그 집단의 지도자와 조직, 하는일, 가족계획사업 또는 요원과의 관계등 부단히 연구·조사·파악해야 한다. 타요원·타직원과 서로 협조하는것도 중요한 일이다.

<훈련과 강회두 연구원>

원고모집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요원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지 5매분량에 아무내용이나 사진 1매와 같이 보내주세요.

<편집실>

어머니회를 통한 가족계획보급

지도요령·3

대부분의 일선 가족계획요원들은 사업을 보급하는데 있어 유일한 조직을 이·동단위의 어머니회로 보고있다. 이러한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요원들은 어떤 형태로 이 어머니회를 활용하고 있는지. 경기도 고양군내 6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본다.

이 6개 자연부탁의 전체가족계획 대상자수는 5백83명으로 이들중 어머니회에 가입한 대상자는 21% (1백23명)에 불과하다. 가족계획대상자가 '어머니회에 가입한상태'는 부탁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어떤 부탁에서는 대상자중 8%정도가 어머니회에 가입되고 있는 하가면 어떤 부탁에서는 대상자중 62%가 어머니 회원으로되어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부탁별로 어머니회에 가입된비율에 따라 가족계획 실천율도비례하리라는 맹각을 가질수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럴지못하다. 다음표에서 보듯이어머니회 가입율과 가족계획실천율과의 관계는 큰 차이가있다.

계	1	1	1	1	1	1	1	번자연부호학
	6	5	6	4	1	0	0	
5		1		1	2	1	7	
8			47683	50506	9			대가산족자자수획
3								
(1)	1	1	1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3								
292024132314								
(21)	62292126188							
2								
9								
9	283876285970							
51	605667564739							

어떤 부탁에서는 오히려 어마
기회 가입율이 낮으면서도 기
족계획 실천율이 높다. 어머니
회 가입율은 부탁별로 가구기
질집된 지역별 수록 높다. 또 대
부분의 대상자들은 어머니회에
취해 깊은 관심도 없을뿐더러
어머니회원들도 그들이 어머니
회원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머니회장이 요원대신 피임약·기구 공급도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
로 요원들은 어머니회원들 보다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회
에 가입된 대상자는 어떤 형태로건 간
에 선택된 가족계획 대상자임엔 틀
림없다.

6개 부탁의 대상자 중 현재 가족계획 실천율은 어머니회에 가입된 회원이 15%인 반면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



◇ 회원이 아니라도 실천토록 권장하고 회원이 되도록 도와주자

더한 비율은 전체 대상자 중 어머니회 가입자가 불과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어머니회원 중 가족계획 실천율이 3 분의 2가 넘는 77%이고 어머니회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는 46%이다.

▲대상자 5백83명 (100%) 중 ①어머니회 가입자 1백23명 (21%), 여기 다시 ②가족계획실천자 88명 (15%)에 ③미신청자 35명 (6%)이다.

▲대상자 5백83명(100%) 중 ②어머니
회나미가입자가 4백60명(79%), 여기
에서 ②가족계획실천자가 2백11명(36
%), ④가족계획 미실천자가 2백49명
(43%)이다.

가족계획실천율이 높다고해서 어머니회운명이 활발하다고는 할수없다.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머니회와같은 집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족계획의 효과도 한층더높아질수있을 것이다. 6개부탁 어머니회중 어머니회장들이먹는 <피임약>이나콘돔과같은피임약재 및기구를요원여신분배해주는 일을 담당하고있는 어머니회는 4개나 된다.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흘이 먹는 피임약의경우 다른 피임방법보다 약 2배가 높다.

또한 콘돔의경
우는 약 3배나
높은데 이력적이틀이하 경이된다.

어머니회장이나 회원들은 지역 단위에서 요원대신 피임약제 및 기구를 공급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요원들은 이러한 어머니 회의 대상자들에게 피임을 잘할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와 계몽을 해야 한다. 아직도

피임 실천자 중에는 피임방법을 정확하게 알지못하고 있는 경우와 초기에 중단하는예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많은 요원들은 늘 어머니회를 이야기 한다. 「가족계획소식」 지난호 (12호) 에서 언급되었듯이 약 5 분의 4에 달하는 어머니회 미가입자에 대한 가족계획 보급도 이를 어머니회원들과 관련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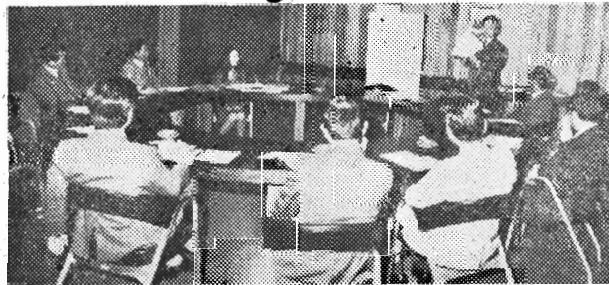
사실상 한지역사회에 있어서 어머니회 월이나 비회원간에 큰 차는 있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웃이며, 대화의 진단이 것이다.

요원은 앞으로 어머니회가 한부탁에서
가족계획의 적은단위가 되어 잘 운영되
게하고 전대상자가 다 회원으로가입할수
있도록 올드하는게 나랑진하다

『글, 진드기, 황금나, 시수간비』

전국적 조직운영을 검토

N P C H 설치후 첫번째 협의회의



◇인구정보관리 협의회의는 전국적 조직운영을 토의했다.

작년 10월16일 가족계획연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구원에 인구정보관리센터(N P C H)가 설치된 후 청으로 지난 5월 9일 인구정보관리협의회를 개최, 전국적인 조직·운영방안을 검토·제시했다.

당연구원 신판 2층 국제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울을비롯멀리 부산·대구동지에서 10여명의위촉위원이 참석, 인구정보관리센터의 그동안 사업·운영을 검토·평가하고 운영개선을 위한 견의 및 자문에 임했다.

당초 인구정보관리센터는 애카페후원으로 열린 「인구정보유통개선에 관한 워크샵」 견의에 따라 가족계획연구원에 부설됐다. 이 센터는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생산의 능률을 높이고, 생산된 정보의 효과적인 배포·교환·유통을 촉진·활용도를 넓

았다. 다음과 같다.

①자료수집에 생산자측의 자료참여가 모방되나 당분간 이 행이 곤란할 것이다. 이 해결을 위해 각기관 도서실관계자를 보고의무자로 임명, 보고토록하고 전국에 지역책임자를 둬서 그 지역내 생산되는 간행물을 인구정보관리센터로 보고하도록 한다. 이제는 배포과정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인구·가족계획용어, 특히 외래어를 우리말로 토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현재 국내 인구정보유통 기관이 65개처이나 이를 확대 시켜야한다. 즉 각 대학 석사·박사과정의 논문과 신문 및 각학교의 연구자료중 판계되는 문헌까지 확대시키는게 좋다.

④인구·가족계획관계 각종

통계가 기관·개인에 따라 다를 경우가 많다.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공식통계를 수록한 데이터시트를 간행배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복사장비를 확장해서 이용자가 필요한 문헌·자료를 구하기 불가능할 때 즉시 복사·보급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⑥각기관 연구사업, 실시에

정인 연구사업을 일정양식에 맞춰 인구정보관리센터에 보고 또는 등록함으로써 새 연구자에게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복사업으로 시간·경제적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⑦인구정보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시군단위 통제판제자에게도 적극 참여토록 한다.

전자계산 단말 장치 가동식

인구·가족계획 관계자료 폭넓게 처리

가족계획 연구원의 속원중 하나인 컴퓨터터미널(전자계산 단말장치)을 설치, 지난 달 19일 가동식을 가졌다.

당연구원 차료처리파에 설치, 여기서 박승합보사 부차 판파 주한 유세이드 쳇장등

리할수있게되어 이분야의 관계기관 및 개인에게는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자료처리파 계산실 연혁은

▲70년 7월 가족계획연구소에 자료처리파설치 ▲74년 7월 가족계획연구원과 미국인구협회



◇컴퓨터터미널 가동식테이프를 끊고 시설을 살피는 홍원장(중앙)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가동 테이프를 끊었다.

이 컴퓨터 터미널은 앞으로 인구·가족계획분야 각종 자료를 폭넓게 신속·정확히 처리

간에 컴퓨터센터설립에 관한 협의 ▲74년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컴퓨터터미널설치계약

▲75년 3월 장비도입▲75년 5월 터미널전용회로설치 및 장비가동,

불임시술 세미나

13일, 2백여명 참석

대한불임시술협회(회장·이희영)는 제1회 전국 불임시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이회의는 13일 하룻동안 가족계획 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자원 불임술 연구원체기구 지원에 보사부·가족계획연



◇가족계획 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불임시술협회세미나.

개회사, 고재필 보사부장관처사(박승합차관 대독), 홍종판 가족계획연구원장과 자원불임술연맹 국제기구부회장, 주한유세이드 대표의 축사가 있음 다음 주체강연·전체회의·분파회의로 들어갔다가 오후 6시경 가든파티를 끝으로 막을내렸다.

1등에 이춘자요원

전국지도원 기초반서



전국보건소 근무지도원기 초반교육 (5·26~31)에서 부산시동래구 보건소 동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춘

자요원 (27·미혼)이 영예의 1등을 차지, 홍종판 원장상과 상품을 수상했다.

1975년 6월 15일 <제13호>